

# ‘남도영화제 시즌3’ 내년 장흥서 열린다

## 군, 지역 협력 체계·연계 프로그램 구축

### 김성 군수 “노벨문학도시 콘텐츠 확장”

국내 유일의 시즌제 영화제인 남도영화제가 시즌3 개최지를 장흥군으로 확정했다. 전남도와 장흥군, 전남영상위원회는 최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지 선정 발표식을 열고, 남도영화제 시즌3를 2027년 장흥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수중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성 장흥군수,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식에서는 시즌3 추진 방향과 함께 2026년 진행될 프레(Pre) 사업 계획도 소개됐다. 프레 행사를 통해 지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장흥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프로그램과 야외 상영 등을 선보이며 본 행사

에 앞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남도영화제는 전남도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시즌제 영화제로, 지역 중심의 로컬 영화제 모델을 구축해 왔다. 개최지를 단순한 행사 공간이 아닌 영화제의 핵심 주제로 삼아, 각 지역의 문화·역사·장소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프로그램 전반에 반영해왔다. 2023년 시즌1 순천, 2025년 시즌2 광양 개최를 통해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화했으며, 특히 광양에서는 컨테이너 특별관 운영 등 지역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시즌3 개최지인 장흥은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노벨문학도시 장흥’을 내세워 문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발

전을 추진하고 있다. 남도영화제 시즌3는 장흥이 지닌 문화적 서사와 정서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기회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는 옛 장흥교도소(빠빠옹zip) 등 지역의 영상문화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장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영화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남도영화제 시즌3와 2026년 프레 행사에 대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추후 공식 누리집(www.ndff.kr)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최수중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남도영화제 시즌3를 통해 장흥의 문화적 자산이 영화와 결합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는 “이번 개최를 통해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다양한 이야기가 영화 콘텐츠로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



전남도와 장흥군, 전남영상위원회는 최근 장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지 선정 발표식을 열고, 남도영화제 시즌3 2027년 개최지역을 장흥으로 확정했다.

# “홍매화 가득한 순천 매곡동으로 봄 소풍 오세요”

## 제8회 매곡동 탐매축제 개최...7일 탐매희망센터 일원



순천시가 오는 7일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홍매화가 열리는 봄, 원도심에서 시작되는 문화’를 주제로 ‘제8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제7회 매곡동 탐매축제 모습.

순천시는 오는 7일 탐매희망센터 일원에서 ‘홍매화가 열리는 봄, 원도심에서 시작되는 문화’를 주제로 ‘제8회 매곡동 탐매축제’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피는 홍매화로 이름난 매곡동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봄계 피어난 홍매화 아래 문화의 봄이 시작되는 축제 기회였다. 원도심에서 펼쳐지는 감각적인 콘텐츠와 힐링 공간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며 즐기는 축제란 단계를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순천시 첫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탐매축제는 ‘봄계 피어난 홍매화 아래, 문화의 봄이 시작되는 탐매축제’를 컨셉트로 원도심 매곡동의 지역 특색을 살린 세대공공 문화콘텐츠를 선보인다. 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오감으로 봄기운을 느끼는 ‘감각’, 홍매화

와 어울려 ‘감동’을 더할 공연, 홍매화 아래 잠시 머물며 쉽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힐링 공간을 통한 ‘치유’를 담아,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보고, 듣고, 느끼며 즐기는 봄날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홍매화 연계 문화 프로그램으로 캘리그라피, 매실 활용 전시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비롯해 스텝 투어, 지역 상점, 공방과 연계한 플리마켓, 먹거리 부스, 각종 부대행사 등을 마련해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매곡동의 기독교 선교 역사 자원을 알리기 위해 국가유산 연계 해설 투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대학과 연계한 콘텐츠 체험 부스를 통해 원도심의 문화자원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 고흥물, 거금도 조생종 햅앙파 첫 선

## 한정수량 20% 할인 예약 판매

온라인 농수축특산물 쇼핑몰 고흥물이 거금도에서 수확한 조생종 햅앙파를 올해 처음 선보인다. 이번 기획전은 ‘고흥이 먼저 키워줍니다’를 주제로, 25일부터 한정 수량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한다. 거금도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 배수가 우수한 토양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조생종 양파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겨울 해풍과 큰 일교차를 견디며 자란 양파는 조직이 단단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아삭한 식감과 짭짤한 단맛이 특징이다. 이번엔 선보이는 햅앙파는 수확 직후 선별과 손질 과정을 거쳐 출고되며, 산지 직송 체계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저장 양파와 달리 수확 초기 특유의 단맛과 부드러운 매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생채, 샐러드,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이번 햅앙파는 고흥물을 비롯해 SSG닷컴과 오아시스마켓(전국 매장 또는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어 소비자 접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이를 통해 산지 직거래 기반의 공공 플랫폼과 민간 유통 채널이 연계된 상생 유통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고흥물 관계자는 “거금도 조생종 햅앙파는 고흥의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 농산물이다”며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전하고자 예약 판매 방식으로 준비했으며, 한정 수량 20% 할인 혜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했다.

# 곡성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블루베리 스마트팜 30명 선발

곡성군은 지역 특화작목의 스마트농업 시대에 대응할 전문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16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블루베리 스마트팜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블루베리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블루베리 스마트팜의 이해, 스마트팜 블루베리 토양 및 물관리 등 이론교육과 함께 선도농가 현장견학, 지역대학(전남과학대학교) 연계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적용 능력을 강화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21회, 92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응시 자격은 교육을 희망하는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곡성군 귀농 예정자도 별도의 면접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입학 희망자는 곡성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입학원서를 내려받아 3월 6일까지 읍면 산업팀에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계획 인원은 30명이며, 합격자 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3월 11일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블루베리 재배의 표준화와 스마트팜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지역 블루베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 광양 청소년 복합 놀이공간 ‘노라야재’ 조성

## 스포츠 체험·K-POP 스튜디오 등 여가 문화 경험

광양시는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노라야재’ 조성을 완료하고,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여가문화를 제공한다. 노라야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내 기존 수영장 공간(1,053.29㎡)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청소년 전용 놀이문화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휴식·문화·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모델링에는 총 30억9500만원이 투입됐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운영·관리는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 수행한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2년부터 청소년

정책제안대회와 현장 소통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휴식 기능을 강화한 상부공간과 체험 활동 중심의 하부공간으로 구분해 구성했으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머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하부공간에는 K-POP 스튜디오와 XR 스포츠 체험공간을 배치했다. K-POP 스튜디오는 청소년들이 춤과 음악을 연습하며 자기표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고, XR 스포츠 체험공간은 가상 현실 기반의 신체활동 콘텐츠를 통해 놀이와 운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또한 파티룸 등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해 포레스트 소통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라야재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여가문화를 경험하며 또래와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소년 전용 공간이다”며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수, ‘위험 제로 도시’ 구축...해빙기 안전점검

##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15개소...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여수시는 위험 제로 도시 구축을 위해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섰다. 2일 여수시에 따르면 4월까지 실시하는 안전점검은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약화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낙석 위험지, 급경사지, 옹벽 등 15개소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여수시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

에 발굴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전점검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적극 운영한다는 점이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시민이 발견한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

#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월 2일 개최

## 군, 30일까지 참가자 모집...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

오는 5월 2일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가 보성체육공원 내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올해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와 전국마라톤협회가 함께 주관한다.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순으로 진행되는 보성녹차마라톤대회는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코스이며, 메타세쿼이아가 로수 길과 원만한 경사로 이뤄져 있어 마라톤러들에게 최고의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대회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으로 티셔츠가 제공되며, 경품으로는 러닝화를 비롯해 보성말차 등 보성의 특산품이 마련돼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 당일 보성군이 운영하는 울포해수욕장센터 방문 시 배번호를 제시하면 1인 5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3월 30일까지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전용 누리집(http://mara1080.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성녹차마라톤대회 역대 최고의 동호인이 참가해 대회의 명성이 더 높아졌다”며 “올해도 성공적인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통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